

시끼보의 중기 경영계획 - 2003년도에

경영목표 달성

시끼보는 오랫동안 중단되어 왔던 주식배당의 부활을 목표로 한 중기경영 계획 “뉴·시끼보·플랜”에서 밝힌 단체수치목표(單體數値目標)를 2003년도 (2004년 3월기)에는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분명히 하였다.

시끼보는 1999년도부터 3개년만에 완료할 예정으로 “뉴·시끼보·플랜”을 추진해 왔는데, 수익(收益)구조는 착실하게 개선되었지만, 디플레(deflation)경향이 가속화하면서 자산매각이 늦어지고, 주가(株價)가 낮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, 2002년 3월의 중기계획 최종년도를 2003년으로 연장하였다.

이 계획에 따르면 단체경상이익을 15억엔 이상, 有이자부채를 350억엔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, 이들 목표는 2003년도에는 달성될 전망이다. 누적손실을 없앤다는 당초 목표도 2003년도 결산에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 그러나 섬유사업을 흑자화한다는 목표는 당초계획대로 2002년도(2003년 3월기)결산에서 달성할 것 같다.

다만 인도네시아의 방직·가공 자(子)회사인 머메이드·텍스타일(MTI)과 전자기기를 취급하는 시끼보 전자의 경영이 부진하여 연결 업적에서는 이들이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았다. 2002년도 경상이익은 연결(連結)이 단체를 밀도는 결과가 될 것이다. 그래서 연결에서의 누적손(累積損)이 없어지는 것은 2004년도가 될 전망이다.

“뉴·시끼보·플랜”은 주로 단체의 업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. 그 후에 연결결산을 중요시하는 경향에 따라, 시끼보도 연결결산을 중요시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아직 완전치 못하다고 한다. 그래서 섬유 관련에서는 인

도네시아의 MTI를 흑자화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 같다.